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1-26)

Give thanks to the Lord (Psalm 136: 1-26)

본 시는 교창시로 첫 행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인도자가 선창하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형이지만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감사의 응답이듯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시는 우리의 신앙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 136 is an interchanging song. When the presider leads with the first line, 'Give thanks to the Lord,' the congregation is supposed to respond by reciting, 'His love endures forever.' Each stanza that follows explains the reason for why we give thanks to the Lord.

Although 'Give thanks to the Lord!' is an imperative, it is also our confession and witness. Just as worshipping God is a reflection of our thanks to the Lord, we must exhibit this same kind of witness in our Christianity, whenever we attend church service. Therefore, we need to see this Psalm as a confession of our faith. Why do we give thanks to the Lord?

1.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본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나 묘사들은 여호와, 신들 중에 뛰어난 주, 주들 중에 뛰어난 주로 이것은 참 신이요 전능자시며 특히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전능하신 행동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됩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한 선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선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 중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의 보존자시며, 완성자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감사를 받으실 만합니다. 참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 선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그 선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2.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본 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를 26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시편 어느 곳에서도 이런 교창은 없습니다.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hesed'로 언약의 사랑, 선택된 사랑 또는 언약의 관계에 들어온 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며 견고한 사랑, 인내하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선하시고 절대로 자기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끝없는 사랑을 계속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힘입으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Because He is good

God's name as well as its description in Psalm 136 express that the Lord is the God of gods, the Lord of lords, the true God, the Almighty, and especially the Creator of all creation. Because He is good, God's almighty acts are beneficial for us.

Charles Spurgeon said, "The Lord is the God who transcends all nature." and "The Lord alone is the highest God of the universe." God is the source of all goodness. He is the good of all goodness. He is the preserver of goodness. He is the God who accomplishes, and the God who gives us good gifts. Therefore, He deserves to receive thanks from His people. Whoever wants to know what goodness is and enjoy it must look in God. God's goodness has appeared since the cre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re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God has bestowed His goodness on us. Moreover, God's goodness has appeared in our salvation, namely our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Such goodness has appeared not only to the Israelites but also to all the people all over the world.

2. Because His love endures forever

Psalm 136 repeats 'His love endures forever' 26 times to give us the reason why we should give thanks to God. Such an interchanging song does not appear in any other stanza throughout the Psalms.

The word for 'love' is 'hesed' in Hebrew, which means a promised love, chosen love, or the love of one who is related to a promise. It may be translated as a steady or patient love. God endures forever. He is forever good and never breaks His promise. Every day we are living in the midst of His goodness and love. Therefore, we who have received His love in this way must give thanks to God for every little thing.

My beloved christians!

Although we may have grieved Him on many occasions, because of His goodness and His love, God continues to bestow His love on us ceaselessly. As we receive His goodness and love,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sing His name forev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 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2010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 3월8일(월) 각 프로그램 별로 -

3월을 맞아 2010년 3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시작된다.

2010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은 3월 8일(월) 각 프로그램 별로 개강하여 10주간 동안 진행된다. 지난 주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열린프로그램 안내 브로슈어와 신청서에 따라 본인의 일정을 조정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기 바란다. 열린프로그램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또한 전도학교 37기도 오늘(주)오후 2시 906호에서 개강한다.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또한 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다원사회 속에서 타종교와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10주간의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1교시는 허주 교수의 '베드로 전, 후서 강해'가 진행되며 2교시는 주제별로 10명의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란다.

2010년도 주요 행사조직

올해 우리교회에서 갖는 주요 행사를 섬기는 섬김위원들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기간: 3/8-5.31, 8.30-11.1

- 원감 이복규 · 부감 한주찬 · 총무 최승환 · 회계 강택근 · 서기 임송자
- 안내1: 박순복/장호림 최금숙 최종희 김숙영 김순영
- 안내2: 김유경/박재숙 이은희4 안미경 윤용미 이현주
- 서적: 오은이/신정순 함은희 하영숙 유종숙
- 글로리아: 서희숙/김미성1 김은희9 박종녀 구영미
- 접수: 김수호/나상민 노인숙 박현영 전광환 박혜영 박종숙
- 차량: 강승웅/배준길 정동화 · 식당: 윤숙희/제2권사회원
- 봉사: 권영만/권장철

<KIMCHI-에디터> 기간: 6.22(화)-6.24(목)

- 위원장 이갑진 · 차장 김광욱 · 기획/진행: 송인권/ 차도훈 김형상
- 의전/수송: 정동화/ 김종철 김원용 영여예배부
- 안내: 윤태욱/ 예배안내위원
- 봉사: 윤갑숙, 윤숙희/ 제1.2권사회 김혜란/ 의전봉사팀
- 음향: 진교남/ 윤요셉 외 멀티미디어 팀
- 재정: 박찬성/ 이준호 김영호 문주현 이희민
- 의료: 안인호/ 의료선교팀, 나미용 · 홍보: 김민철/ 순례자 팀

<홍해작전> 기간: 6.6(주)-6.25(금)

- 참모장: 이관규 차장 홍승전 · 기획: 최양진/ 김상태 이양철 정처은
- 예배: 윤동수/ 예배안내위원 · 동원: 장덕/ 교구간사전원
- 홍보: 서춘식/ 유혁근 오윤걸 김영주3
- 식당: 주동재/ 김정애 윤숙희 김선영
- 차량: 이종창/ 피택집사, 차량관리부

<열린바자> 기간: 9.9(목)-9.10(금)

- 위원장 임상현 · 차장 김금준
- 기획: 김시환/ 한상준 김영희1 노제현 박승현
- 재정: 송인수/ 이인순 안분선 정경자
- 판매관리: 오승민/ 윤갑숙(제1권사회) 서춘식 고정숙 정미연
- 섭외: 이동만/ 윤숙희(제2권사회) 이양철 김성준 김영빈 윤석원 백승갑
- 홍보: 김규태/ 진교남 유은경 오주명
- 시설관리: 오치열/ 이승우 오유식 이인근 정인주 예완식 진승근
강석조 강수남 남정원 제2세대반회
- 주차: 최광성/ 임옥균 구정두, 제1세대반회

<사명자대회> 기간: 10.3(주)-11.21(주)

- 본부장: 신용식 · 차장 배재송 · 진행: 윤명구 · 홍보: 허숙
- 전도: 은기장 · 기도: 김장섭 · 교육: 이계홍 · 안내: 이남성
- 재정: 양춘경 · 봉사: 김진환

제5회 호산나학교 및 대학 입학식



2010년 3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제5회 호산나학교 및 대학 입학식이 가평 호산나대학 대강당에서 있었다.

1부 입학식 감사예배와 2부 입학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호산나학교 및 대학 구회숙 교목의 예배인도, 박노철 목사(호산나대학장)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어 진행된 제2부 순서에서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학생의 입학 허가 선언과 축사, 학부모, 학생, 입학생 선사, 이동기 부학장의 학교소개 및 교수소개, 신입생과 재학생 상견례, 재학생 상장수여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호산나학교 및 대학 입학생은 호산나학교 5명, 호산나대학 44명 등 총 49명이 입학했다.

무지개 합창단 4기 신입단원 모집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의 기독교화를 추구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두번째 정기 연주회를 가진 무지개 합창단 제4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으로 어린이 찬송가, 동요, 민요중 1곡을 노래하며 음감과 리듬감을 테스트 한다. 원서 접수 및 공개 선발은 2010년 3월 12일(금) 오후5시부터 서울교회 802호에서 갖는다.

문의: 서울교회 사무국
(02)558-1106



금주의 성구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삼상 12: 22-23)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떠꾸는 아이가 되기를

이남용 집사(10교구)

둘째 딸 민주의 초등학교 입학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궁금해 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옛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하 한다니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가 저에게 힘들게 한 적도 있지만 웃음과 행복을 더 많이 주었고 둘째라서 더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늘 아기 같고 어리광만 부려서 어떻게 초등학교를 갈까 했는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에서 떨어져 다리에 깡스를 해 속상하게 했던 우리 둘째 딸 민주가 이제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에 입학하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생활에 첫발을 디딘 것을 생각하면 대견하기도 하면서 기특하고 또한 잘하라고 응원도 보내고 싶습니다.

입학하는 민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 갈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입학하 축하하면서 엄마로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아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 주시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민주야!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시작하며

제 37 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김재진 목사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부원장)

금번 제3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의 주제는 '다원사회 속에서 타종교와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입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이종운 위임목사님께서 해외 강의 차 출타하시기 때문에, 1교시(14:00-15:30)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허주교수님께서 '베드로 전·후서 강해'를 맡아 주십니다. 그리고 제2교시(15:50-17:20)에는 '타종교와 기독교 이단·사이비 종파들'을 기독교 정통주의 신앙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특강을 각 분야에 정통하신 교수님들께서 맡아 주십니다. 이러한 세미나 주제를 정하게 된 동기는, 21세기 '포스트모던(Post-Modem)' 시대가 되면서, 한국 학계 및 교계에도 '종교다원주의'적 차원에서 '종교간 대화'가 새로운 학문적 화두(話頭)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교계와 신학계는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상적 혹은 학문적 혼란기를 틈타서 각종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종파'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회의 '한국교회갱신연구원/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은 오히려 오늘의 한국종교계의 현실을 '기독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계몽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타종교와 이단·사이비 종파에 대한 연구'를 '세미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라는 신학사의 일화(一話)도 있듯이, - 그러나 이 말은 이단에서 정통이 나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 '타자를 통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이단사상'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하는데서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단'과의 논쟁을 통하여 교회는 내적으로는 '기독교의 자기정체성'을 정립했고, 밖으로는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변증하는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 자못 '이단종파'들의 반발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 '신앙과 복음을 방어(Defence of Faith and Gospel)'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과제이기도 기꺼이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지순교자적 신앙에 의해서 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강익자 권사(12교구)

십자가 지고 가신 언덕길 위에서
조롱당하고 멸시 당하신
그 아픔이 육체의 고통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마음의 아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가식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지내온
시간들을 모두 용서하소서.

마음의 칼을 내려놓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찢러대고 있는 미움과 시기과 질투,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주여! 용서하소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저를 용서하시고
꾸밈없이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 뿐
감히 무얼 고하며
무얼 달라하며
무얼 구할 것인지...

같은 내 영혼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시험당함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위로하길 원하심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스데반회 수련회를 마치고

영적 성숙의 기회

이동만 집사(2교구)

3월 1일, 아가페 타운에서 제 1, 2 스테반회는 부부동반으로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제하며 영적 성숙의 기회로 준비한 그 날 정제되지 못한 마음을 준비케 하시려듯 새벽부터 하늘에서는 합박눈으로 우리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며 가평의 아침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려 진행되는 하루 일정의 수련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라와 교회와 스테반회를 위한 기도로 이어졌고 오전 특강에서 이종



운 목사님의 "복음화된 통일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부흥은 민족의 우수성, 근면성, 성실성에도 있지만 북한의 예로 드시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도전과 갈등을 메워 주셨습니다.

오후로 이어진 두 번째 특강에서 임상현 장로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일상으로 알고 지녀야 할 규정들을 알기 쉽게 풀어 주므로 섬겨야 하는 중직자로서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는 유익함을 주었고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팀을 이루어 시작된 박수 게임은 친교를 더욱 돈독히 하는 여유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